

“마음청정 나라청정” 부처님 오신날 다양한 기념행사

총지종은 염주제작, 물품판매, 장엄등 및 연등제작으로 참여



◇총기 29년 부처님 오신날 음마니반예축 대형 프랭카드와 함께
불기 2545년 부처님 오신날(5월 등행진이 4월29일 동대문~종로
1일)을 기념하는 연등축제 및 제 구간에서 봉행되며, 봉축기간이

4월15일부터 5월1일까지로 정해
지는 등 '부처님 오신날 주요행사
일정'을 발표했다.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이
번 2545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표
어를 마음청정 나라청정(心淸淨
國土淸淨)의 한글번역인, 육신
과 부정으로 오염된 사회를 바로
잡자는 메시지를 담았으며 주 케
릭터로 청정한 마음으로 청정한
나라와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은 '연꽃동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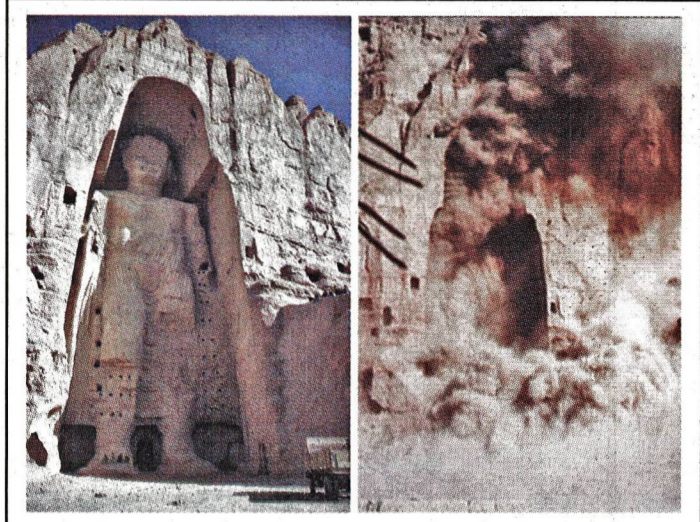
올 봉축행사의 방향은 초파일
의 상징인 등불화를 전통문화의
계승과 문화포교의 방향으로 등
(燈) 문화 향상하고, 소외되고 어
려운 이웃을 돕는 자비 실천으로
대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자비의 사회적 실천 확대, 신라
의 간등(看燈), 고려의 연등회,
조선의 관등놀이 전통을 이어 연
등축제를 시민·외국인과 함께
하는 흥겹고 역동적인 전통문화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한편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
식은 5월1일 오전 10시 조계사와
전국사찰에서, 천오백년 전통과

한민족의 혼이 살아있는 전통등
전시회는 4월 27일 강남 봉은사
에서, 신명나는 등불놀이마당이
4월28일 조계사 앞에서 열며 서
울시청 앞 점등식은 4월17일 오
후 7시에 한다.

또한 4월29일 정오부터 연등만
들기, 외국인 등만들기 대회, 서
각 탁본 시연, 질신 삼기, 전래
민속놀이와, 줄타기, 법패시연,
선무도 등 다양한 불교문화마당을
종로일대에서 열어 축제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본 종단은 이번 부처님 오신날
을 맞이하여 거리행사에 염주(21



◇아프카니스탄 바미안 대불이 이슬람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탈레
반 정권에 의해 파괴되었다.

염주, 54염주, 108염주)를 만들어
보는 등 스스로 참여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종단 홍보와 포교에 주
요방향을 잡았으며 불교총전·종
조법설집·밀교장경·차랑염주·
호신다라니 등 다양한 총지종 물
품 판매의 행사도 추진한다.

또한 총지 종단을 가장 잘 나
타낼 수 있는 장엄등, 연등을
다양하게 만들 계획이며, 본 종
단과 자매결연을 맺은 7사단 칠
성부대에 OP 점등식을 4월 19
일에 하는 등 부처님 오신날 행
사에 총지종이 주체적으로 참여
하여 빛나는 자리를 만들 계획
이다.

만다라와 행자가 하나가 되어 궁극적으로는 성도에 이르는 길



◇금강계, 태장계 만다라에 대한 설명을 최성규 교수로부터 듣고 있다.

특정 종령님과 혜암 통리원장,
원송 총무부장, 지성 재무부장은
지난 3월 14일 본 종단의 대작불
사중 하나인 금강계 만다라와 태
장계 만다라 조성 불사중인 성암
사 불교문화원을 방문하여 최성
규 교수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특정 종령님은
“만다라는 단순한 예불의 대상이
나 불·보살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만이 아니라 행자가 불교적 우
주관에 마음을 가다듬어 흠어지
지 않게 하고 성도, 성불을 목표
로 하여 만다라에 행자 자신의 불
성을 나타내어 수행을 증진시켜
결국 불·보살의 세계로 진입하
는 가장 근본되는 사상이다” 하
시며 만다라 불사에 최선을 다하
고 있는 관계자들을 치하했다.

최교수는 이 자리에서 총지종
단에서 조성중인 만다라 조성 불
사는 한국적 만다라로서 도상과
의상, 화관을 한국적으로 창작하

였으며, 교의적으로 분명한 의
의, 결의, 수인은 계승하였다 설
명을 하였다.
또한 불보살 한존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번 밑그림과 색칠을 하
다보니 작업의 진행속도가 느려
지고 있지만 최고의 만다라 조성

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종단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하였다.
현재 만다라 불사 조성은 약
70%정도 완성중이며 올 상반기
면 태장계 만다라와 금강계 만다
라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총기 29년도 결산 감사

예산의 투명성·사업진행과 계획 타당성 감사

통리원, 법장원, 총지종 유지
재단 정기결산 감사가 지난 3월
28일 29일 1박2일 동안 진행되었
다.

이번 감사는 총기 29년도 종단
및 종단 산하기관에 대한 결산감
사로써 총기 29년에 대한 전반적
인 감사의 형태를 띄고 있다.

이번 감사를 맡은 국광사 법성
주교는 “원래 이번 감사는 총기
29년에 대한 결산감사는 올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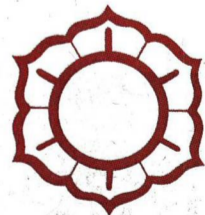
중에 실시하고 희망의 총기 30년
을 맞이해야 하는데 년초, 월초,
신입통리원장 선출 및 임원선출
로 예년보다 늦어진 3월에 실시
되었다며 이번 감사는 요식적인
년중 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에 대한 감사와 사업을 집행하는
예산의 투명성, 사업의 진행과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를 중
점적으로 하겠다” 밝혔다.

특히 12대 통리원 집행부가 구

성되고 실시된 이번 감사는 11대
통리원 및 종단·종단 산하기관
의 운영에 대한 감사를 표본으로
총기 30년 운영의 기초를 잡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기감사가 실질
적이고 내용성있는 감사가 될지
는 의문이 든다. 우선 2명의 감
사인원으로 총지종단 및 사회복
지재단, 법장원을 단시간에 감사
를 한다는 것은 감사의 내용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한계점을
내재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국광사 법성주
교와 화음사 법정주교가 맡는
다.



불교 총지종

제57회 춘계강공

종조 원정대종사님이 흥포한 밀교의 주옥같은 진언, 정확한 인계, 엄격한 의례와 사중수법을 현대에 맞게 해석하여
교화와 포교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춘계강공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종단산하 전 스승님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활성화방안 대토론회

- 개강불사 : 총기 30년 4월17일
- 종강불사 : 총기 30년 4월18일
- 장 소 : 총지사 서원당
- 대 상 : 전국 스승님
- 주 관 : 불교총지종 통리원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혜 암



사설

맹신이 부른 불상파괴의 만행

종교는 문화를 꽃피우지만 한편으로는 문화를 파괴하기도 한다. 세계적으로는 고대 이집트 조상들은 코가 운전한 것이었다.

기독교들이 이교의 상징인 이집트 조상들의 숨구멍을 막기 위해 코를 깨뜨린 것이다.

찬란한 신라불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주 남산의 불상을 보면 온통 깨지고, 부서지고, 머리가 없으며, 파괴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열마전의 단군상 파괴와 불상에 십자가를 그려놓는 만행은 종교의 믿음이라는 미명아래 타종교에 대한 적대감을 우리는 많이 보아 왔다.

지금도 중동의 한곳에서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불교유적파괴 작업이 강성 회교도인 탈레반 군사정권에 의해 불상파괴 만행이 자행되었다.

국토의 95%를 장악한 이슬람 원리주의세력 탈레반 최고 지도자 모하메드 오마르는 포고문을 통해 불상은 이슬람교에 대한 모독이므로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세계적 문화유산인 불상들을 파괴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인도에 접해 있을 뿐 아니라 이란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교통의 요지로 세계 최대불교유적지중 하나다. 특히 산 절벽에 3km에 걸쳐 2000여개의 석굴이 뿔뿔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세계최대의 불상인 동대불(37m)과 서대불(55m) 등 대형불상이 있고 석굴군의 불상과 불화는 세계적인 보물들이다.

바미안 석불들은 2세기경 서북 인도의 가불갈 하루 평원 지대를 중심으로 번성했던 인도 쿠산왕조가 꽃피운 간다라 불교미술의 걸작품이다.

지금은 비록 아프가니스탄 영토에 포함돼 있지만 그 유적들은 인류 전체의 문화 유산이다. 적어도 주변 불교국가들에는 함께 공유할 권리가 있는 역사적 유물이다. 탈레반정권은 이러한 문화유산을 잠시 보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을 뿐 함부로 파괴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과 마쓰우라 고이치로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간곡한 설득과 주변 불교국가인 태국, 네팔, 스리랑카와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불상파괴 중단을 요청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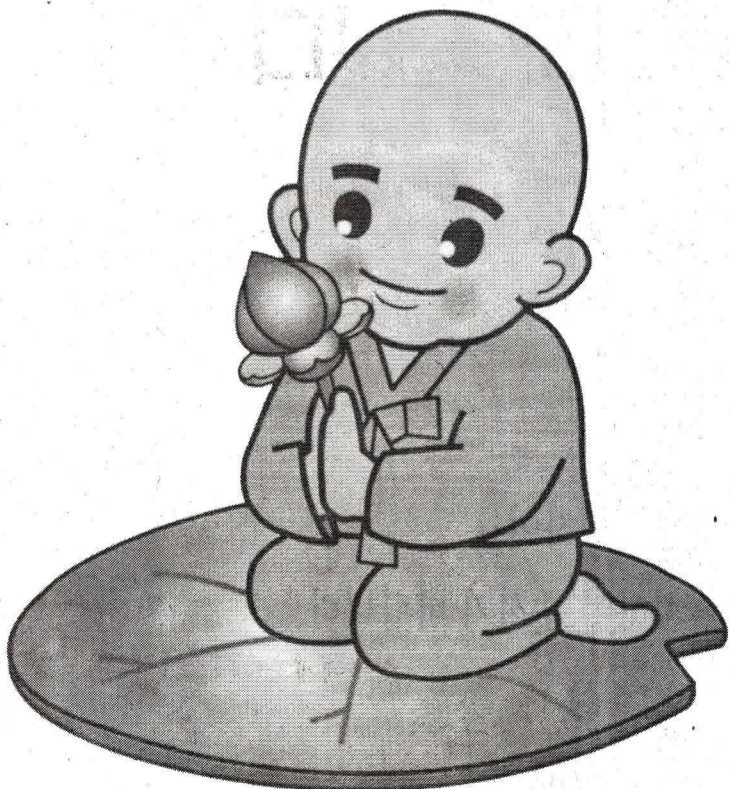
또한 김대중대통령도 유엔등 국제기구에 불교유적인 바미안 대불의 파괴를 막기 위한 국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으며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비롯한 민주당 불자위원 및 한나라당 불자회도 성명을 통해 불교유적 파괴를 중지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저 달걀이 부수는 것인데 왜 이리 소란이냐는 탈레반 정권의 시각은 맹신과 무지 뛰어난 정신병자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종화와 공화에 무너져 내리는 많은 문화유적들을 보존하기 위해 지구촌 전체가 시간과 처절한 싸움을 벌리고 있다.

탈레반 정권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불상이 이슬람교에 대한 모독으로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교문화에 대한 파괴이든, 현재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파키스탄을 포함한 3개국에 불과하여 정권의 세계적 고립과 움직임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석불을 파괴하든, 이유가 어찌든 불상파괴는 야만적 반달리즘(문화유산 파괴행위)이다.

문화유산은 종교적,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어떠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다음세대에 물려줄 인류의 소중한 가치이며 현 세대가 지켜야 할 절대적이다.



2545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제 57회 춘계강공회 개최 교화 활성화 방안 대토론회

제 57회 춘계강공이 오는 4월17일부터 1박2일 기간으로 총지사 서원당에서 전국의 스승님을 대상으로 개최된다.

이번 춘계강공회에서는 교화 활성화 방안 대토론회의 큰 주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평소 교화의 현장에서 느꼈던 교화의 어려움과 시대 변화에 맞는 교화 방법의 개발등 다양한 의견과 내용이 나올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강공회에서는 교화 부진의 원인과 대책, 교화 방법의 개선과 개발, 수행방법의 개선 및 개발, 사

원시설 및 건축양식 개발, 신도회 활용 및 활성화 방안, 복지, 교육, 학술, 출판연구분야등 종단의 전반적 분야에 대한 토론회를 가진다.

또한 4월 16일 제69회 중앙총의회를 개최하여 총기 29년도 결산(안) 심의와 중법개정(안) 심의, 재단법인 불교총지종 유지재단 임원선출, 사회복지재단 임원선출을 하며, 4월 18일 94회 승단총회를 열어 중앙 총의원을 선출한다.

이번 강공회의 교화활성화 대토론회는 교화의 침체성을 벗어나는 일대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다.

강남불교연합회 창립

법등 총지사 주교 강남불교연합회 부회장에 선출

작년 11월부터 논의 되어온 강남불교연합회가 오는 3월 31일 오후 2시에 강남 봉은사에서 창립법회를 하였다.

강남구내 불교계의 연합체 결성에 대한 제안과 세차례 준비위원의 산고 끝에 강남불교연합회가 창립되어 강남지역 연합 불교문화행사와 관내 복지시설 후원을 통한 지역민과 유대를 강화하여 지역사회발전에 불교계가 앞장서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행정기관과의 민원성 문제 발생시 공동으로 대응하여 불교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강남불교연합회 회장에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과 부회장에 불교총지종 총지사 주교 법등, 능인선원 원장 지광스님이 선출되었으며 감사에 강남포교원 원장 성열스님, 진각종 행정위원장 해일종사가 선출되었다.

묵란(墨蘭)이 주는 교훈

-김원각(시인)-

7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조 당선, 만해 불교문학상, 정은시조문학상, 중앙시조대상, 고양시 문학상 수상

욕망은 괴로움을 낳고

괴로움은 스스로를 상하게 한다

리고 허공을 향해 시원스레 뻗어 올라간 잎들이 두 줄기가 중간중간에서 왼쪽으로 휘어졌다.

그 중에 한 줄기는 중간에서 휘어져 나가다가 다시 한 번 꺾어져 전혀 예기치 못한 공간 속으로 들어가더니 잎의 끝이 아래를 향하고 있다.

처음에는 으레 한 두 줄기는 저렇게 그리나 보다 하고 심상히 보아오다가 어느 날 나뉠대로의 개안(開眼)을 얻었다.

말하자면 우리의 상식적이고 고정적인 안목을 파괴함으로써 이 그림 전체의 운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뒤늦게 '파격'의 맛에 눈을 뜬 것이다.

동양화에 있어서의 여백이란 멋의 사상이라는 것도 어렵듯이 깨닫게 된 것이다. 내가 소유한 묵란은 많은 여백을 남기고 있다.

그 여백은 단순한 여백이 아니라 잎 줄기 하나가 깊숙히 휘어져 들어감으로써 무한의 깊이를 지니며 향기를 품고 있는 공간으로 출렁이는 것이다. 한 폭의 그림은 무언(無言)의 시요, 시는 말하는 그림이라는 말을

상기하면서 나는 이 묵란에서 선비 정신을 떠올린다. 청빈한 선비의 모습이 한 폭의 묵란과 같다면 그가 거느리고 있는 정

신의 공간은 바로 묵란의 여백이 아니겠는가. 인간은 누구나 정신적이 공간을 지닌다. 그 공간이 넓고 깊을수록 멋과 인격의 향기는 멀리 번져난다. 그러나 물욕에 허덕이는 사람은 그 정신의 공간은 좁아진다.

'나는 물욕이 없으므로 가장 신(神)에 가깝다'라고 한 그리스의 철학자 말도 이런 뜻이리라.

물욕의 본질은 만족을 모르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의 충족을 위해 일생을 허덕인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다.

많은 욕망은 괴로움을 낳고 그 괴로움은 결국 스스로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지만 두두물물(頭頭物物)이 모두 부처라 한 선사(禪師)의 법언에서 보자면 이 묵란은 나에게 부처임이 틀림없다.

'그래, 박복한 이 중생이 이제 더 무엇을 바라겠나. 나도 저 묵란의 여백처럼 빈 마음에 산을 세우고 절을 짓고 비파와 물 소리나 불러들이자'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도 묵란의 여백이 준 교훈 때문

보다는 의지로 가득하였다.

총사모의 4월 행사로 7일 양재동 헬렉스에서 백혈병, 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혈액속에 있는 철소판에서 자연보호 활동시간을 가진다. 이날 행사는 부처님의 자비 보시행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사가 될 것이다.

한편 회장이었던 법주는 모임의 활성을 위해 회장체계가 아닌 총무체계로 모임을 이끌어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모임이 되도록 사임을 하고 통리원 윤승호 교무가 총무로 새롭게 선출되었다.

서울경인교구 교구회의 열거

서울 경인교구 스승님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27일 교구회의를 지인사에서 개최하여 향후 교구발전의 방향과 총기 30년을 이끌 새로운 통리원장 및 각부장의 임명에 대한 설명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 이날 교구장이었던 밀인사 원승주교가 통리원 총무부장에 임명되어 공석이 된 자리에 벽룡사 환수원 주교가 교구장에 임명되었다.

이다. 몇 년전 묵을 갈아 붓을 잡아보았다. 벽에 걸린 묵란을 그리기 위해서다. 그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화가는 영혼에 붓을 ?서서 그리는데 나는 붓 끝에 먹을 ?시켰니 말이다. 나는 이 그림을 그리다가 다음과 같은 시를 하나 얻었다.

붓 갈 데 안 갈 데 분별조차 못하면 서/미구 휘둘러 놓은 파지 직전의 그림 한 폭/내 마음 펼쳐 낸다면 아, 이런 형국 아닐는지.

먹물에 싸인 여백들이 더욱 희게 보이는 순간/뼈 속에 와 닿는 깨우침 하나 있기를 안든 나머지 마음, 그거나마 잘 닦으려는.

그렇다. 이제 늦게나마 마음을 잘 닦아 향기를 지녀야겠다는 깨달음, 그것으로부터도 청복(淸福)이 아니겠는가. 법구경.에도 '간강할 때 마음을 수행하지 않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고기 없는 못가의 늪은 백로처럼 쓸쓸히 죽어갈 것이다' 하였으니 참으로 두려운 말이다.

오늘도 내일도 한 폭의 묵란을 그리면서 여백의 충만을 배울 것이다. 능력껏 소유한 나의 재물에 만족하며 살고, 명예보다는 가치를, 부유한 보다는 넉넉하기를 기원하며 살아간다면 늪은 백로처럼 쓸쓸히 죽어가지는 않으리라. 나는 이렇게 믿으며 벽에 걸린 묵란의 깊고 그윽한 여백을 다시 한 번 바라보다.

인사발령

통리원법 제 3조에 의거하여 원의원 임명직임원과 불교총지종 유지재단 사무국 사무국장 인사를 지난 3월 2일에 각각 발령하였다.

수인사 주교 원봉



총기 10년 승천사 주교 총기 14년 원의원 총기 16년 통리원 사회부장 총기 19년 중앙

정각사 주교 정정심



총기 9년 복혜서 원당 주교 총기 11년 성화사 주교 총기 18년 중앙 총회의원 총기 23년 정각사 주교 총기 30년 부산 경남 교구장 및 원의원에 임명

법황사 주교 법수원



총기 11년 정각사 근무 총기 12년 원덕서원당 주교 총기 13년 법황사 주교 총기 18년 중앙 총회의원 총기 30년 원의원에 임명

벽룡사 주교 환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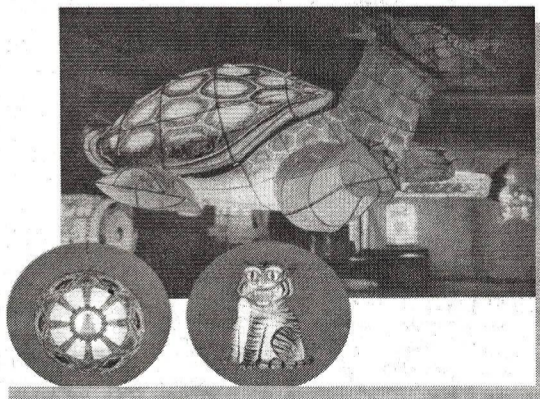
총기 11년 정각사 근무 총기 13년 흥국사 근무 총기 14년 일광서원당 근무 총기 19년 벽룡사 주교를 명함 총기 26년 필인재행위 대전주 승직에 명함 총기 30년 서울 경인교구장 및 원의원에 명함

총지사 인선 임명



총기 21년 성화사 근무 총기 22년 통리원 근무 총기 25년 통리원 총무부장 총기 29년 총지사 근무 총기 30년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사무국 사무국장 임명

등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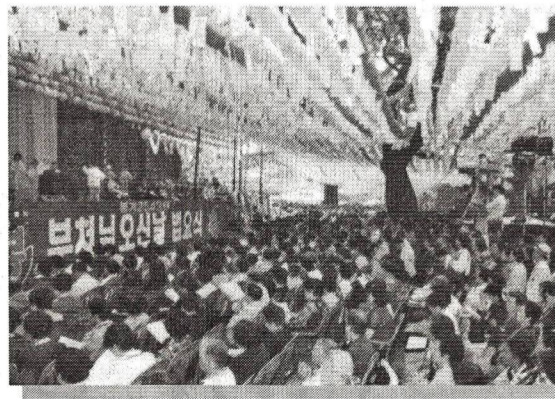
·일시: 2001. 4. 27~5. 3
·장소: 강남 봉은사

연등놀이



·일시: 2001. 4. 28. 오후 7시
·장소: 조계사 앞

법요식



·일시: 2001. 5. 1. 오전 10시
·장소: 전곡 사찰

불교문화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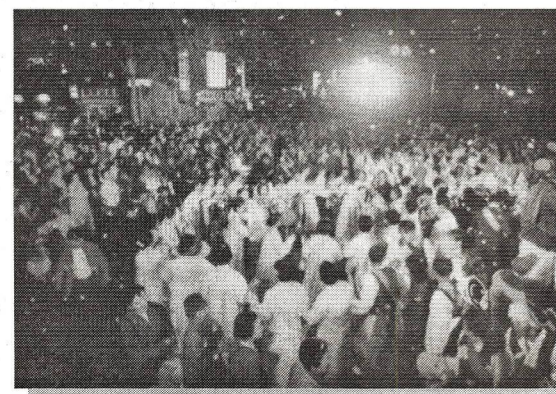
·일시: 2001.4.29. 오후12시~10시
·장소: 조계사 앞

제등행렬



·일시: 2001. 4. 29. 오후 7시
·장소: 종로거리(동대문~종각)

대동한마당



·일시: 2001. 4. 29. 오후 9시
·장소: 우정국로

그림속의 불교이야기

무명번뇌를 깨뜨리는 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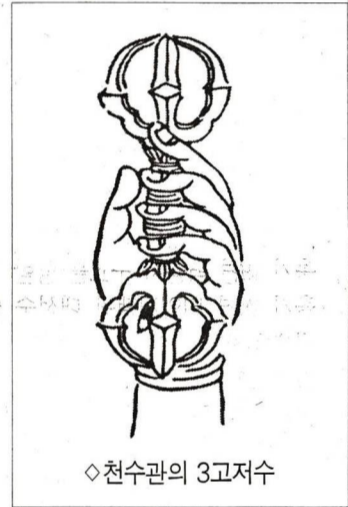
불교의식을 행할 때 여러 가지 의식용 법구(法具)가 쓰인다. 그 가운데서 밀교의식에서 쓰이는 법구로는 금강저를 아마도 첫손 꼽을 수 있겠다. 금강저는 산스크리트어 바지라(Vajra)를 금강(金剛) 또는 금강저(金剛杵)라 뜻음



◇금동요령



◇사리 공양상



◇천수관의 3고저수

인도 고대로부터 무기로 사용되었으며 제석천이 아수리를 쳐부수었다는 전설이 불교에 수용되어 중생의 무명번뇌를 끊고 깨닫는 데에 사용되었다. 이것이 다시 밀교에 이어져 비로자나불의 지덕(智德)을 나타내는 부분을 금강계(金剛界)라 하고 다섯 가지 과지(果智)에 따라 5부로 나누어 금강부를 건립하였다.

금강저는 금(金)·동(銅)·철(鐵) 등의 재료를 써서 만든다. 그 형태를 보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자루를 중심으로 양쪽 끝에 날카롭게 뾰족한 갈고리처럼 갈라진 끝의 가닥의 수에 따라 하나면 독고(獨?), 세 개면 삼고(三?), 다섯 개면 오고(五?), 일곱 개면 칠고(七?), 아홉 개면 구고(九?) 부른다. 끝 가닥이 하나인 독고가 가장 오래된 형식이다. 금강저는 자루부분의 생김새에 따라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자루의 중심부 좌우에 불

꽃모양을 새긴 것은 보저(寶杵)라 하고 탑을 새긴 것은 탑저(塔杵)라 한다. 밀교의 의식에서는 의식단(儀式壇)에 금강저를 봉안하는데 그 배치법은 탑저를 가운데 두고 사방에 배치를 하는데 이를 오종저(五種杵)라 말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3고저나 5고저가 많이 남아 있으며, 칠고저나 구고저 그리고 보저나 탑저 같은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금강저는 번뇌 뿐만 아니라 악마를 물리치고 사악한 것을 몰아낸다는 벽사의 의미를 지니게 되므로 만다라나 시경화 등 불화의 테두리에 금강저 무늬를 그려 넣어 수호신장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금강저를 설명하면서 더불어 금강이란 수식어가 붙은 금강령(金剛鈴)도 덧붙이고자 한다.

금강령 또한 불교 의식 때 사용하는 법구의 하나이다. 그



◇오른쪽부터 천수관음의 금강저수·탑저·보저·귀면독고저

밀교의식 법구는 금강저가 최고 금강저는 「수호신장」의 의미 부여

리키게 되었다.

인도 고대로부터 무기로 사용되었으며 제석천이 아수리를 쳐부수었다는 전설이 불교에 수용되어 중생의 무명번뇌를 끊고 깨닫는 데에 사용되었다. 이것이 다시 밀교에 이어져 비로자나불의 지덕(智德)을 나타내는 부분을 금강계(金剛界)라 하고 다섯 가지 과지(果智)에 따라 5부로 나누어 금강부를 건립하였다.

금강저는 금(金)·동(銅)·철(鐵) 등의 재료를 써서 만든다. 그 형태를 보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자루를 중심으로 양쪽 끝에 날카롭게 뾰족한 갈고리처럼 갈라진 끝의 가닥의 수에 따라 하나면 독고(獨?), 세 개면 삼고(三?), 다섯 개면 오고(五?), 일곱 개면 칠고(七?), 아홉 개면 구고(九?) 부른다. 끝 가닥이 하나인 독고가 가장 오래된 형식이다. 금강저는 자루부분의 생김새에 따라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자루의 중심부 좌우에 불

생김새는 자루를 중심으로 아래쪽에는 추가 달린 조그만 종(鐘)이 달려 있고 위쪽은 금강저의 반쪽 부분을 닮았다. 종신(鍾身)에는 주로 불법을 수호하는 신중을 많이 새기고 있는데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금강령에서 가장 널리 쓰인 무늬는 사천왕상이다. 그밖에 용을 새긴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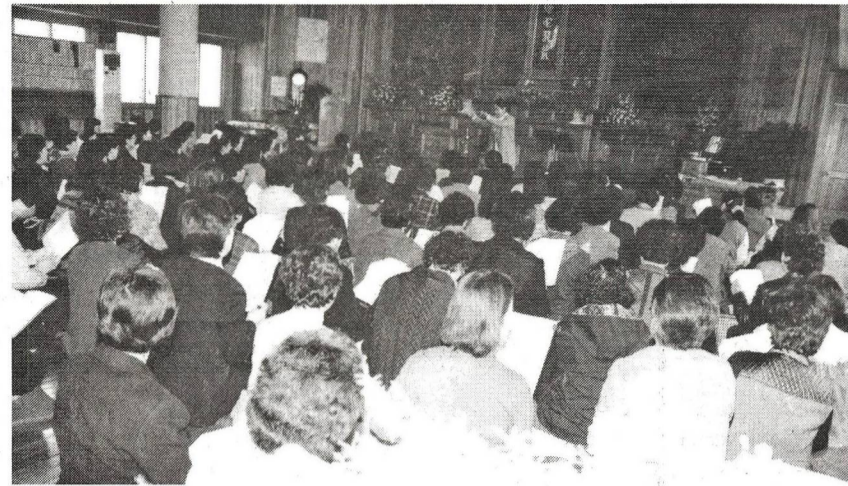
금강령도 자루 위쪽에 달린 갈고리 형태에 따라 독고령, 삼고령, 오고령, 구고령 또는 보주령, 탑령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개 삼고령과 오고령만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때로 요령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대개 자루의 위에 붙은 장식이 갈고리 형태가 아니고 사람의 얼굴을 새기거나 보주를 닮은 장식을 하고 있다.

현존하는 금강령으로는 승주 송광사에 있는 금동금강령(보물 제 176호)을 꼽는다.

고려 초에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이 금강령은 전체 높이가 20.6cm이고 종의 입지름은 6.6cm이다. 자루에는 중앙에 굵은 마디가 있고, 종신이 특이하게 위아래가 길쭉한 편이고 4면으로 이루어졌으나 곡면(曲面)을 이루고 있으며, 각 모서리에는 굵은 선으로 테두리를 하고 각 면마다 당초문 형식의 구름무늬 속에 매우 사실적인 용 한 마리씩을 돌출 새김하였다.

사원은 지금...

정각사, 부산불교 연합회 합창제 위해 맹연습



◇부산 정각사에서 연습중인 부산불교연합회 합창단 모습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 기간에 부산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예정이던 부산 불교연합회 합창제가 오는 4월 23일이다.

이날 합창제는 모두 5개팀이 참석하여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아름다운 음성으로 포교함으로써 쉽게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산 정각사 합창단(단장 황윤희보살)도 이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삼광사, 천불사, 미동사, 금강암과 함께 정각사 합창단 사무실에서 지난 3월16일부터 매주 금요일 2시간씩 맹연습 중이다.

음성공양도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정각사 교도들은 타 합창단을 정성껏 맞이하여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서원하고 있다.

정보 다이제스트

인체의주물물 유전정보 총칭 "게놈"

게놈(genome)은 생물의 생노병사와 관련된 유전정보 전체를 뜻하는 용어. '유전정보의 전달자'인 유전자(gene)와 '유전자를 담는 그릇'인 염색체(chromosome)의 합성어다.

유전암호는 아데닌(A), 티민(T), 시토신(C), 구아닌(G) 등 4개의 염기로 구성되며, 인간 게놈은 대략 31억의 염기쌍으로 만들어져 있다. '인간 게놈지도'의 완성이란 복잡한 게놈구조를 구성하는 이 염기쌍들의 배열순서를 모두 알아내 인간의 의지에 의해 연구, 이용하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

유전자는 인체내에서 '주형'처럼 특정 단백질을 생산해내는 역할을 하므로 유전자 염기서열을 알아낸 것은 정밀한 주형 구성 부품의 정확한 위치와 명칭을 알아낸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다. (한겨레)

여성운전자 10명중 7명이 남성의 위험운전 경험

2일 순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주)에 의뢰해 작년12월1일부터 14일까지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여성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중 65.1%가 위험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여성운전자중 42.9%가 운행도중 남성운전자로 부터 욕설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84.1%는 '남성운전자들이 자신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

男 기쁠 때 女 우울할 때 탐식

여자는 남자보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자주 나타내며 우울하거나 걱정스러울 때 강한 식욕을 느끼는 반면 남자는 기쁠 때 식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국립연구기관인 INSERM의 리오넬 레페 박사팀은 의학 전문지 '국제섭식장애저널(IJED)' 3월호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분 상태가 식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과거 6개월 동안 일주일에도 적어도 한 번 이상 식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을 식탐이 있는 사람으로 분류한 결과 여성은 전체의 28%가 식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는 13%만이 식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레페 박사는 또 "음식과 기분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다"며 "기분에 따라 식탐을 느끼는 것은 심리적 요인이 식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다. (중앙)

정자는 난자하기 나름

마리아나 울프너(Mariana Wolfner) 박사는 "난자의 생식 단백질도 정자 단백질 못지 않게 활발히 변화하며 새 암호를 만들어 낸다"며 "이 암호를 풀지 못하는 정자는 난자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작 한개의 난자를 향해 1억개가 넘는 정자들이 죽기살기로 돌진하는 것일까. '선착순'에 따라 오로지 1등으로 난자와 접촉한 정자가 수정에 성공한다는 통념을 뒤집고, 난자가 일종의 테스트를 거쳐 '똑똑한 정자'를 선택한다는 주장이 새로이 제기됐다.

미국의 코넬대 연구팀이 수정 과정을 난자 입장에서 해명, 난자는 정자에 비해 수동적이고 둔한 만큼 안정적이라는 기존 확설에 일격을 가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7일 전했다. 난자의 표피를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암호를 풀어야 한다는 것. (동아)

'여성권한 척도' 세계 63위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1908년 미국의 1만5천여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뉴욕 루트거스광장에서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얻기 위해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한 날이다. '2000여성백서'에 따르면 남녀평등지수는 세계 30위이며 여성의 권한척도는 이보다 훨씬 뒤쳐져 63위에 머물러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남자(74.4%)에 훨씬 못 미치며(47.4%), 여성은 고작 남성의 3분의 2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조선)

서울 '삶의 질' 세계 93위

미국계 다국적 컨설팅회사인 윌리엄 머서가 12일 미국 뉴욕을 기준(100점)으로 전세계 215개 주요 도시의 주거환경·교통혼잡도 등의 항목에 대한 상대적 편의성을 조사해 발표한 '2001년도 삶의 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서울은 82점을 받아 93위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92위에서 한 단계 추락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캐나다 밴쿠버와 스위스 취리히가 각각 106.5점으로 공동 1위에 올랐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도쿄 19위, 싱가포르 35위, 오사카 50위 등으로 나왔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도시로는 콩고의 브라자빌(26.5점)이 뽑혔다. (문화)

총 지종을 사랑하는 모 임에서 알려드립니다

4월 아지랑이 한올 한올 피어나는 계절에 총지종을 사랑하는 모든 분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활동을 가지고자 합니다. 많이 동참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1

혈소판 제공

백혈병, 암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혈액속에 있는 혈소판을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혈액에서 혈소판을 분리한 후 5일밖에 보관을 할 수 없어 많은 환자들이 제시간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몸에서는 20일이면 혈소판이 다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보시행을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서원합니다.

일 시: 4월 7일 토요일 13시 총지사에서 출발
시 간: 체력시간 약 1시간 소요
장 소: 양재동 혈액원

행사2

청계산 자연보호

양재동 청계산에서 자연보호활동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곳곳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함으로 해서 후손들에게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일 시: 4월15일 일요일, 13시 총지사에서 출발
대 상: 남녀노소 누구나. 등산복 차림에 장갑착용
장 소: 양재동 청계산
회 비: 1인당 10,000원
시간일정: 13시 총지사 출발
14시 등산 및 자연보호활동
17시 하산 및 분리물 처리
18시 저녁 및 정기회의



불교총지중보 삼밀사 주교
중앙총회의 의장
종사 김 의 강

지상설법

불자의 기본자세와 바른 삶의 방향

는 법문도 들을 수 없느냐" 하면서 소동을 피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 법사가 다시 법문을 이어 시작하자 이번에는 등에 업고 온 애기가 울어대어서 모든 청중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러나 노파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다. 꾸짖고 싶었지만 청중들은 소란스러울까 하여 그만두었다. 법회가 끝나고 대중들이 밥공양을 하려는데 노파가 그 틈에 끼여 들어와 "내가 제일 배가고프니 먼저 밥을 달라고 성화를 부리는 것이다. 미운 생각이 말할 수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삼년동안의 화엄경법회를 성스럽게 회향하는 날이어서 참고 먼저 밥을 퍼주고 돌아서려니 이번에는 등에 업은 애기의 밥을 달라고 부르는 것이다. 마침내 견디지 못한 대중들이 이구동성으로 질책하자 잡자코 있던 노파가 별안간 업고 있던 애기를 내동댕이 쳐버렸다.

그러자 울고 보채던 애기는 푸른 청사자로 변하고 더럽고 악취가 풍기던 노파의 모습은 향내을 풍기는 문수보살의 모습으로 화현하는 것이다. 이에 삼천명의 모든 대중이 노파의 발아래 엎드려 예배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문수보살은 청사자를 타고 허공으로 멀리 사라지면

서 대중에게 다음과 같은 한마디 법문을 남겼다. "중생들이 평등한 마음을 가지거라. 언제나 행색이 더럽다고 내치더니 이제는 거룩하다고 예배를 하는구나. 더럽고 훌륭(칭정)한 것은 행색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평등하고 평등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특히 화엄사상은 한마디로 나의 마음, 부처, 중생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중중무진한 법계의 연기(緣起)에 의해 파악하고 있다. 비록 아무도 왕래가 없는 한적한 어느 산모퉁이에 말없이 홀로 피어 있는 한송이 패랭이꽃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참 생명과 미소를 읽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의식과 환경이 너무나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수행과 교화에 여념이 없는 승단이나 보살대중은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살아야만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것인가? 우리모두가 다시한번 깊은 반성과 비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본심인 미묘 진언 "옵나니반배후"을 한번만 불러도 그

공덕이 이루 헤아릴수 없다고 들어왔고 또 그렇게 경에 나타나고 있다. 5년, 10년 아니 평생동안 우리는 기쁘나 슬프나 앉으나 서나 가나 오나 이 본심진언을 얼마나 부르고 외우고 영송해 왔다. 어느 선지식의 말씀과 같이 눈을 감고 앉아있다고 부처가 되며 염주만 바쁘게 굴린다고 보살도를 이루겠는가? 그렇게 앉아 굴리고 있는 이 덩어리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이제야 철이 조금씩 드는지 요즘 새벽정승을 할때면 본존을 직시하면서 너무나도 자신이 어리석게 분별없이 살아왔으며 모든 것이 다 나의 허물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남들이 보고 생각할 때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였을까? 스스로 자책한지가 한두번이 아니었지요.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를 믿고 수행정진에 여념이 없는 우리 모두에게 불자의 기본자세와 바른 삶의 지표를 감히 다음과 같이 부탁하고 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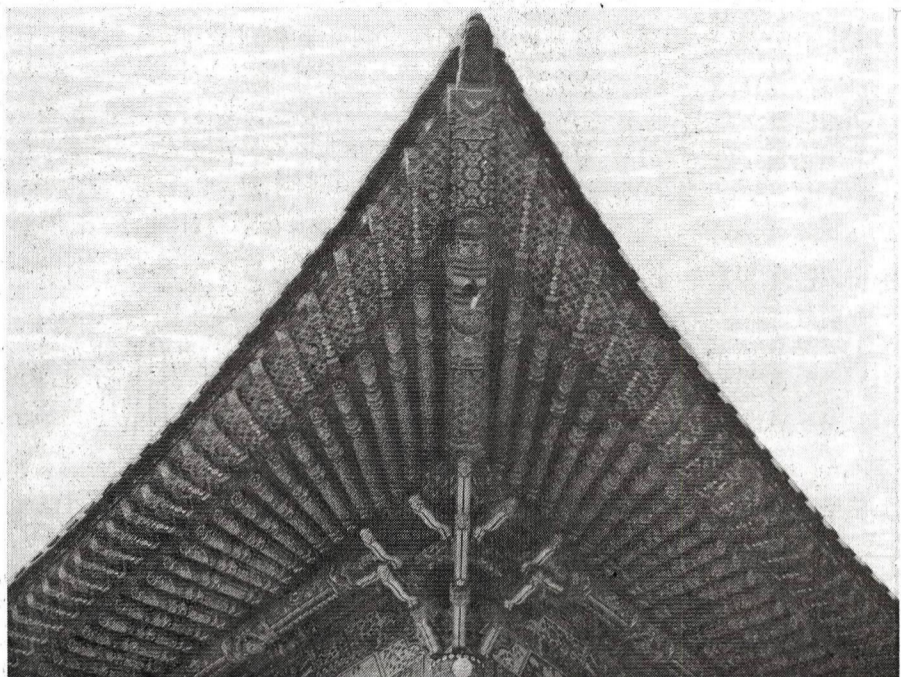
첫째 항상 참회하는 마음과 높은 원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설자리"에 바로서고 있는가? 멀리바라보고 생각하

정신과 감사하는 마음 봉사하고 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향과 촛불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은 탐욕심에 충만하고 진심을 잘

마음과 같이 부처도 그러하고 부처와 같이 중생도 그러하나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셋이 차별이 없도다 (如心佛亦爾如佛衆生然 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

어느 한 중생도 여래의 지혜를 갖추지 않은 이가 없기 때문에 여래의 지혜는 이르지 않는 곳이 없건만 다만 중생들이 허망한 생각과 뒤바뀐 집착으로 증득하지 못 할뿐이니 만일 그 허망한 생각을 여의면 온갖 지혜가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움직이는 큰 파도가 곧 잔잔한 물이니 그 물을 빼고 따로 파도만 건질수 없듯이 중생의 마음에 부처



항상 참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보시하는 마음 맑은 향과 무명을 밝히는 촛불처럼

내는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타인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다스리려는 사람들로 우리를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입으로는 온갖

님 마음을 빼고 따로 중생마음이 있을 수 없다.

중생이 바로 부처이다. 집착을 여의면 바로 부처님의 지혜가 나타남을 자각하도록 깨우쳐 주고 있다. 우리 총지중보를 창종하신 원장대종사님께서 당신의 교리요강에서 즉신성불(卽身成佛)을 구경으로 한다고 선언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신이 바로 부처임을 자각하고 부처인 본래의 자기 모습을 되찾으려는 순간 곧 부처의 마음에 의해 자기와 남이 동시에 해탈하는 모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화엄에서 보살도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펼쳐 보인 것이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염착하는 기나긴 구법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경구를 느려놓으면서도 실은 세속적인 출세(?)의 욕에 불타고 있는 속이 훤히 보이는 지도자나 대중이 얼마나 많지 않는가 말이다. 우리들이 행하는 일체 모든 행동의 주체자는 곧 마음이다. 그 마음을 일으키는 지리가 바로 부처님의 마음자리일 때 중생이 바로 부처로 살게 되며 차타일시성불도(自他一時成佛道) 하는 때이다. 여기에 널리 화되는 화엄경의 계승을 몇구절 들어봅시다.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모든 재건을 그려내니 오온이 마음 따라 생기어서 무슨 법이든 짓지 못함이 없다(心如工畫師 能畫諸世間 五蘊悉從生 無法而不造)

삼계가 허망하니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三界虛妄 但是心作 十二緣起 是皆依心)

만약 어떤 사람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하라(若人慾求知 三世一切佛 應當如是觀 心造諸如來)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若人慾了知 三世一切佛 應當法界性 一切能心造)

최첨단 정보문화의 물결이 가속을 멈추지 않고 환경과 급격한 오염은 자연의 순리를 망각하고 인간의 의식과 생활구조도 하루가 다르게 변모 하여가는 오늘 그 메마른 마음의 풀앞에 무엇을 뿌리고, 심고 가꾸고 키워야 할 것인가?

신사년의 새봄은 어김없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몇 생명들이 제 나름대로 기지개를 펴면서 각기 색깔과 모양을 하루가 다르게 자랑하려고 애단들이다. 우리 모두가 인욕하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며 보다 밝고 화목한 가정과 이웃을 창조할 것입니다.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지극히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날이 즐겁고 부처님의 은혜로움이 충만한 가정과 이웃을 이루소서.

총기 30년 3월 좋은날



아는만큼 보이고 느끼다

호마란 무엇입니까?

호마란 소공양(佛供養)의 뜻으로 '태워서 공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호마는 밀교의 수행방법에 있어서 만다라건 탑이나 관정, 공양행과 함께 중요한 작법 중의 하나이다.

원래 호마는 공물(供物)을 화중(火中)에 던지는 것으로 산에게 공양하여 한 집안의 평안과 오곡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로 출발하였다. 고대인도 바라문교의 베다에서 유래되었는데, 불교는 그것을 지혜가 일어나서 번뇌를 태워 없애는 의례로 정착하게 되었다. 즉 혜화(慧火)를 가지고 번뇌의 장작을 태운다는 뜻으로 승화된 것이 밀교의 호마이다.

대체로 호마행은 도량에 만다라를 건립하고, 관정의식을 마치고 나면 행하게 되는데, 4종~5종이 있다. 증익법, 식재법, 경애법, 조복법(항복법)의 4종으로 나누기도 하고, 여기에다 구소법을 덧붙여 5종 호마수법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러한 호마행은 바로 행자의 소원성취와 재재초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주된 목적은 아니다. 호마행의 궁극은 번뇌로부터 벗어나 지혜를 이루는, 즉 불신성취(佛身成就)에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호마행이 상당히 일반화 되어 있는데, 연말이면 자기 소원을 호마목(護摩木)에 적어서 화로(火爐)에 던져 넣거나 불에 태우며 소원을 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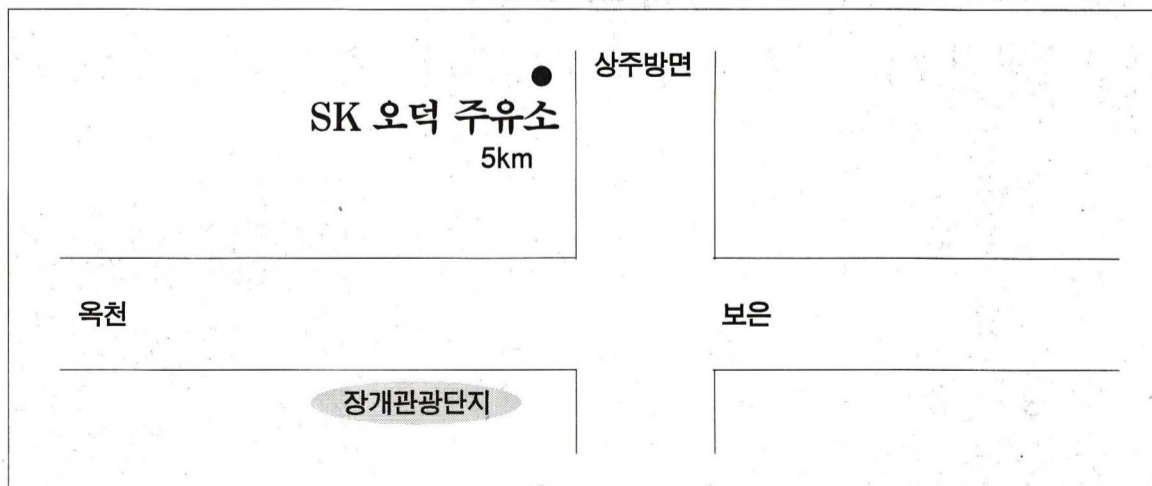
불과 소원을 비는 마음과의 관계. 이러한 유형은 꼭 불교의 호마행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서 보게된다. 우리의 풍습 가운데 제사지 방을 태우는 것이나 망자의 옷을 태우는 것 등이 불교의 호마와 같은 의미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불에 태우는 행위나 그 의미의 유사성과는 상통하지 않나 생각된다. 반공교육이 심했던 3공화국 하에서 허수아비를 불태우는 화형식을 거행했던 적이 많았는데,

여기서 화형은 바로 적대자나 마군을 물리치는 조복법(항복법)의 유형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어쨌거나 호마행은 밀교에서 중요한 수행작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종단에서 행하고 있는 4종수법은 중요한 호마행법의 하나이다. 더욱 발전시키고 계승시켜야 하겠다.

번뇌로부터 벗어나 지혜를 이루는 佛身成就

SK 오덕 주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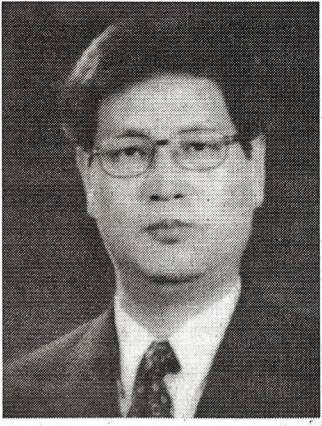
충북 옥천군 안내면 오덕리

대표자 : 진승용

전화 : 043-542-3116

* 직접 배 과수농사를 지어 시중가의 30% 저렴한 가격에 과일도 판매합니다.

총지논단



차차석

- 충북 과산 출생
-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동대학원 철학박사
-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종교연구소 객원 연구원
-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 현 동국대 불교학과 강사, bk21 포닥연구원
- 논문으로는 「법화경의 본서사상연구」, 「불교의 역사이해」, 「법화경의 역사적식 탐구서론」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현대 한국종교의 역사이해」(공저), 「구도자의 나라」와 다수 역서 「자선삼매경」, 「법화사상」, 「중국불교사」 등이 있다.

불교의 계율은 너무 방대하다. 이유는 부파에 따라 각각의 율장을 편집하고, 그것에 의지하여 승가생활을 영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수많은 종류의 계본(戒本)이 남아 있고, 그것들을 통칭하여 율장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계본은 주로 근본불교 이래 부파불교시대에 성립된 것이 대부분이며, 대승불교에 들어오면 대승불교 교정신에 따라 계율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 또한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 중의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계율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 임의적으로 해석하는데 의지할 것이 아니라 대승 계본 전체를 통시적으로 고찰, 분석하여 얻어진 결론에 따르는 것이 보다 현명한 행동이라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계율은 개인적인 규범윤리인 계와 승가의 공동생활을 운영하기 위한 율로 구분한다. 따라서 <<사미율의요략중주>>에 의하면 계는 금계(禁戒)를 지시하며, 율은 법률이라 해석한다. 잘못을 방지하고 악을 그치게 하는 것이 계의 궁극적 의미이며, 잘못의 경중을 처단하는 것이 율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정신인 것이다.

팔리어로 계는 śīla 하는데 "본성, 성격, 도덕적 실천, 불교의 의미" 등을 의미한다. 율을 의미하는 vinaya는 "통치하다, 내물다"를 의미하는 용어이며, 여기서 전이하여 "- 의 지배 아래서의 훈련"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런 본래의 의미

에 대해 <<사미율의요략중주>>에서 계는 마음을 제어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고, 율은 수호로써 으뜸을 삼는다고 해석하는데 선종의 영향을 받은 해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계율이란 용어가 지닌 압축적 의미를 심분 보여주는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사분율>>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사분율>>은 동북아 불교에 가장 오랫동안 강력한 영향을 미친 계본이다. 중국 당나라 때 남산율종이 성립하면서

가지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승가를 심수하고 포용한다. 둘째 승가로 하여금 기쁘게 한다. 셋째 승가로 하여금 안락하게 한다. 넷째 아직 신심이 없는 자로 하여금 믿게 한다.

다섯째 이미 신심이 있는 자는 더욱 증가하게 한다. 여섯째 (생활이) 난조에 빠진 사람은 순조롭게 한다. 일곱째 참회(懺悔) :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것)하는 사람은 안락하게 한다.

으로 인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에서 계율이 제정된 근본 목적을 살펴보면 계율의 제정에 대한 정보를 한 가지 더 부언하자면, 불교의 계율은 유일신교의 규범처럼 신의 계시나 강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자율적인 도덕성의 발달과 선악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인도 불교에 관한 세계적 권위자였던 일본

조건이 변천함에 따라 나타난 사회현상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런 결론은 도덕의 보편적인 기준을 설정하는데 회의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는 무관하게 불교의 계율은 수범수제(隨犯隨制)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존재의 의의는 무엇이고 존재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회의 속에서 인간성의 자각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것은 불교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어떻게 인간에 나아가 보편적인 생명의 존귀함을 지키고 현양해 갈 것인가를 탐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알려 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부처님은 인간이 오히려 계율에 지나치게 사로잡히는 것도 방지하고자 했다. 따라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 소소한 계율은 버려도 좋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은 계율에 대한 시각을 유연하게 만들어 불교도들이 계율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이런 정신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대승불교의 간편하고 실용적인 계율이 등장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불타의 이상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승단을 지키고, 신도 개개인의 생활의 질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계율이며, 그런 점에서 계율의 수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계율 제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계율은 계와 승가의 공동생활 위한 율

<<사분율>>은 기본 텍스트로 채택이 되며, 여타의 중단에서도 이 계본에 의지하여 승가를 운영해 왔다. 이후 다른 계본은 연구의 대상일 뿐 살아있는 계본으로서 취급받지를 못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 계본에 의지하여 왔으며, 현재 조계종단도 이 계본에 의거하여 수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분율>>은 비구 250계, 비구녀 348계를 설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율 제정의 목적을 열 가지로 압축하여 정리하고 있다.

여덟째 현재의 번뇌를 끊는다. 아홉째 미래의 번뇌를 끊는다. 열째 정법이 오래 머무르게 한다."

이상의 계율제정의 목적 열 가지를 분석하면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승가의 통제와 화해와 안락을 위한 것이며, 넷째와 다섯째는 일반인들이 불교에 대한 신심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섯째부터 아홉째는 승가 내부에 불순한 사람들을 없애고, 계율을 범한 자들을 참회시켜 안락하게 만들고, 현재와 미래에 계율을 범하는 번뇌를 없애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열번째는 승가가 청정함

의 고 나카무라 하지메 선생은 그의 <<원시불교>>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불교의 계율은 무엇인가 특수한 계율 혹은 기이한 실천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이 인도의 사회적 통념 혹은 도덕관념에 따라 바르다고 인정된 것을 골라 취하고, 나쁘다고 인정된 것을 버렸던 것이다. 즉 세간의 현자가 시인하고 있는 것을 좇고 있다"

이상의 인용문과 실제로 발생배경이 같다고 한다면 불교의 계율은 일반 사회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의

총지 동의 보감

갑상선기능 항진증

갑상선 호르몬은 모든 대사를 조절하므로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신체에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호르몬 과다 분비에 의한 갑상선기능 항진증은 외래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원인은 그레이브스 병이 대부분이다. 갑상선기능 항진증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5~10배 더 발생한다.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한다. 손발이 떨리는 일이 흔하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며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 수 있다. 특히 남자의 경우 주기성머리라 하여 다리가 갑자기 마비되는 수가 있다. 이때 감각은 정상인데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무척 놀라게 되지만 특별한 치료 없이도 몇 시간 내지 며칠 지나면 자연히 회복된다. 여성의 경우 월경불순이 흔하고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갑상선기능 항진증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5~10배 더 발생해

여성 월경불순 흔하고 임신이 안돼

갑상선기능 항진증의 증상은 호르몬 과잉에 의해 체력소모가 심하며 쉬 피로감을 느끼게 하며, 위장관 운동이 증가되어 먹은 것이 금방금방 내려가 쉽게 배가 고파지고 식욕이 증가되나 오히려 체중은 줄어든다. 위장관 운동이 빨라져 붉은 대변을 하루에도 여러번 보게 되고 심하면 설사가 나기도 한다.

열 발생이 많아 더위를 참기 힘들고 땀이 많이 나며 안정 시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벼운 운동에도 쉽게 숨이 차게 된다. 심한 경우 부정맥이 나타나고 심부전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

신경이 매우 예민해져 사소한 일에도 잘 흥분하고 화를 잘 내게 되며, 집중력이 떨어지며

피부는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는 데도 심하게 가려울 수 있으며 땀이 많아 축축한 느낌이 든다. 손톱과 발톱은 약해져 잘 부서지며 머리리카락도 쉽게 빠질 수 있다. 노인의 경우 이런 증상이 모두 나타나지 않고 갑작스런 체중감소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며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안구 돌출증도 약 1/3에서 볼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증상을 가지나 진단과 치료는 어렵지 않다.

김욱희 대구 김내과 의원 원장 053) 792-5115

큰스님 걸어가신 길 영원히 우리 곁에



▲경남 산청군에 개관될 성철스님 기념관.

성철 큰스님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경남 산청군 성철스님 생가터에 개관된다. 기념관은 한옥 형태의 안채와 사랑채 전시관 등으로 꾸며지는데 특히 전시관에는 성철스님이 생전에 사용했던 누더기 두루마기를 비롯해 고문신과 덧버선, 지팡이, 친필 법어문등 각종 유물이 전시된다.

성철스님의 탄생과 출가 열반에 이르는 수행의 발자취를 설명하는 '기대' '수행' '이해' '깨달음' 등 4개의 전시공간으로 이뤄진다.

성철스님 생가 복원은 93년 스님이 열반에 드신후 스님의 유업을 잇는 일환으로 산청군과 성철스님문도회의 제안으로 98년 생가 일대 부지 3천6백평 매입 착공하여 총사업비 52억원이 소요되어 3월30일 개관한다.

성철스님은 1912년 산청에서 태어나 25세인 36년 동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재방선원에서 수행정진했으며 해인총림 초대 방장을 거쳐 81년 제7대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에 취임 했으며 93년 11월4일 오전 해인사 퇴설당에서 열반했다.

류시화 선생님이 법정 스님의 말씀과 설법들을 엮어서 발간했던 책의 내용 가운데 아주 감명 깊었던 글이 기억난다.

"얼마전 존경하는 동화자가 정채봉 선생님을 만났더니 이런 일화를 들려 주셨다. 정선생님이 한여름에 법정 스님을 찾아 아편 적이 있었다고 한다. 불일암에 도착하니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후시 게 수행이 되겠는가. 홀로 살면서도 나는 낮잠을 주무시는 게 아닌가 하고 오두막 가까이 가서 스님을 부르자, 먼 뒤꼍에서 걸어나오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님, 이 무더운 날 무얼 하고 계셨습니까?' 하고 묻자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생활속의 밀교

매일하는 진언연승은

자기점검과 절제를 닦는 것

진정한 수행과 자유는 내적

절제에 있으리라!

"절음에 빠지지 않으려고 칼로 대나무를 깎고 있었습시다."

줄지 않기 위해 그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었다. 한 여름에 그것도 혼자 지내는 거처이니 낮잠을 즐길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데 줄지 않고 활짝 깨어 있기 위해 칼로 뾰족한 대나무를 깎고 있었다니... 스님의 그 대나무 깎는 일화는 두고두고

고 내게 경책이 되었다. 그것이 얼마만큼이나 스스로 자신의 매서운 스승 노릇을 해야 하는 일인가를 그 일화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또 어느 사석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는 꿀꿀 혼자 살고 있다. 그러나 내가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후시 게 수행이 되겠는가. 홀로 살면서도 나는 낮잠을 주무시는 게 아닌가 하고 오두막 가까이 가서 스님을 부르자, 먼 뒤꼍에서 걸어나오시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님, 이 무더운 날 무얼 하고 계셨습니까?' 하고 묻자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아침 저녁 예물을 빼놓지 않는다. 하루를 거르면 한 달을 거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삶 자체가 흐트러져 버린다.

우리가 매일하는 진언연승의 진정한 의미도 바로 이와같은 것이 아닐까. 자기 점검과 자기 절제를 닦는 것! 진정한 수행과 자유는 내적 절제에 있으리라. 매순간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과 타협하는 일보다 더 경계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일일 것이다. 자신을 내태와 타협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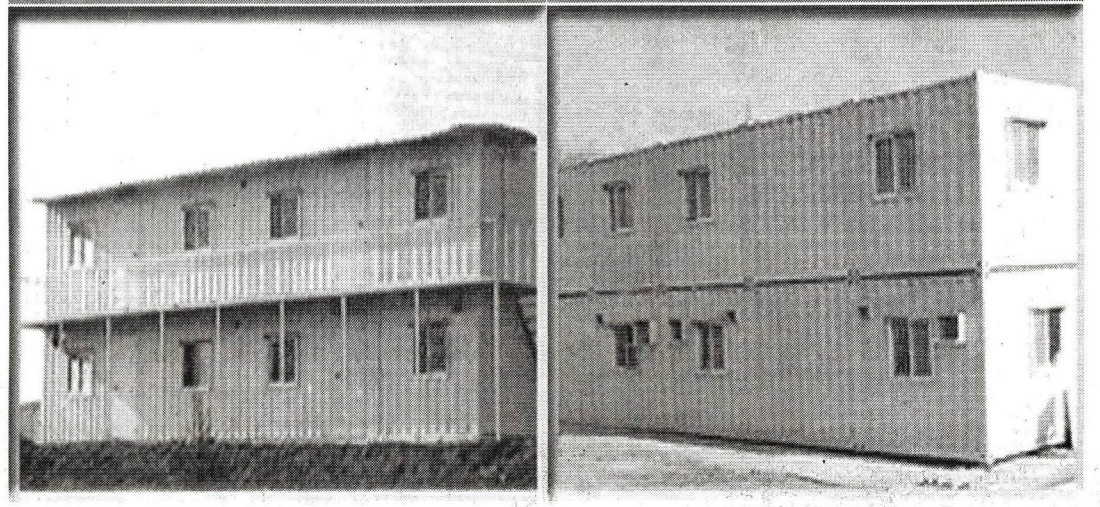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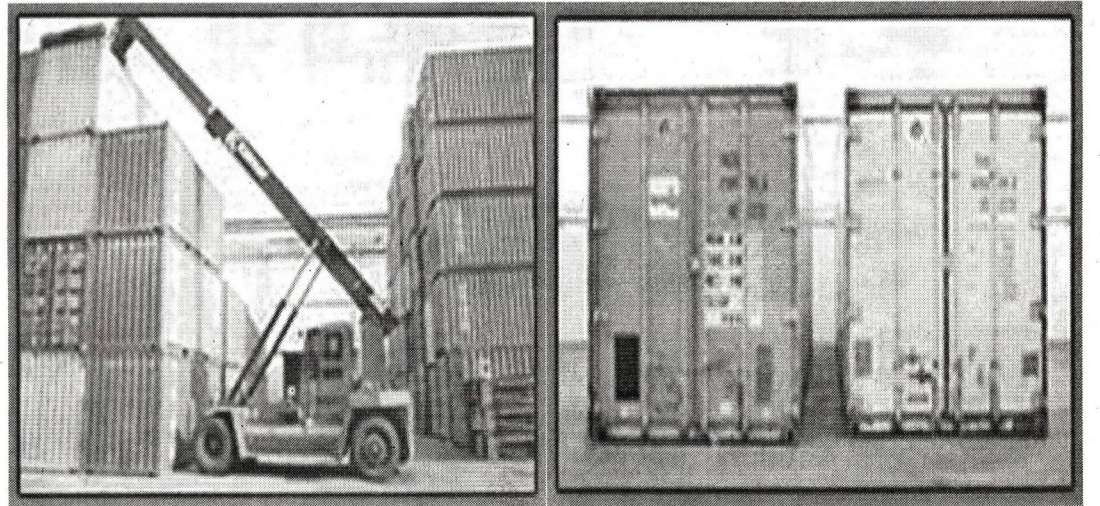
법경-법장원연구원

논산형제콘테이너

내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며 만들겠습니다.
(공장 직접 제작)

- 주택(농가용 주택 포함)
- 사무실
- 창고
- 원두막
- 경비실
- 차고
- 방갈로
- 매점
- 정류장
- 영안실
- 기타 특수 주문제작 판매

공 장 : 충남 논산시 두마면 유동리
대 표 : 강 대 길
전 화 : 042)854-2251~2



총지문화계 소식

부처님 오신날 봉축 문화행사 다양하게 어린이 찬불가 경연대회



제 13회 전국어린이연꽃노래잔치가 오는 4월8일과 22일에 동국대학교 중앙당에서 오후 1시에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통한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독창, 저학년, 고학년, 중, 합창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연꽃노래잔치는 봉축위원장상 및 금·은·동의 단체상으로 시상할 예정이며 장학생과 어린이 음반취입과 대한불교소녀, 소녀합창단에 입단 자격이 부여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봄바람에 불교TV 기지개 활짝

불교TV는 경영위기를 맞은 이후 재방송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났다.

불교TV는 경전강좌, 철학강의, 드라마 및 민화, 법문, 건강체조 등 7개 포교프로그램을 신규 제작해 방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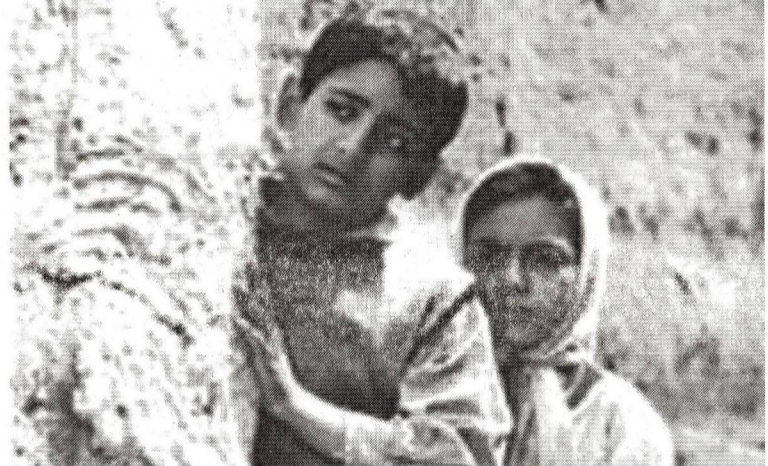
동국대 철학과 강사 김종욱씨가 진행하는 '불교와 철학과의 만남' (수, 낮 12시 25분- 오후 1시 25분)은 서양의 전통 및 현대철학, 중국의 전통사상 등과 불교철학을 비교 분석해 강의를 한다.

진옥스님(여수 석천사)이 진행하는 '금강경으로 건너는 21세기' (토, 오전 8시50분- 오전 9시20분)는 금강경 사상을 현대인들이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또 승속을 초월한 선지식들이 출연한 '향기로운 말씀' (목, 토 오후 3시55분- 오후 4시)은 시사적인 주제로 날카롭지만 향기로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한다.

또 'b'n 열린마당' (토, 오후 5시 45분- 오후 6시 25분)은 매주 교계에 일어나는 행사소식, 미담사례, 화제의 인물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불자들에게 정보를 채워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영화, 비디오 보기 천국의 아이들



이란 영화는 순하고 착하다. 할리우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섹스, 폭력, 파괴는 찾아볼 수 없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사회에서 어쩌면 '맑은 동심'은 감독들이 즐겨찾는 유일한 돌파구인지 모른다.

가끔씩 우리들을 흥분시킨 이란 영화를 기억속에서 찾아내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카이로스타키의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1987), 파나히의 '하얀종선' (1995) 등은 어린이의 순수함을 주제로 한 이란의 대표적인 영화이지만 감동과 풍부한 정서적 감흥과 재미는 '천국의 아이들'이 훨씬 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운동화 한 켤레의 감동 그리고 잃어버린 순수함”

발에 맞지 않는 오빠의 낡은 운동화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느 날 자라는 잃어버린 자신의 구두를 신고 있는 꼬마를 학교에서 발견한다. 자라는 꼬마에게 신발을 돌려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꼬마의 궁핍한 삶을 보고 이내 포기한다. 우여곡절 끝에 자라는 어린이 마라톤 대회의 3등 상품이 운동화라는 소식을 접한

다. 알리는 신발 때문에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다. 1등이 아니라 3등을 해야만 신발을 부상으로 탈수 있다. 그러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알리는 1등을 한다. 그 때문에 새 신발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자라의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물거품처럼 사라진 신발은 하지만 아버지의 뜻밖의 선물로 알리와 자라를 찾아간다. 어지러 가난하지만 순수함을 잃지 않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삶을 위해 어디로 달려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란 감독 마지드 마지디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닐런지... 마지디 많은 인생경험에서 나오는 인생의 깊은 맛을 감독은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원정대성사와 함께하는 비주얼밀교. A series of comic panels featuring a monk and a child, discussing Buddhist concepts like karma and enlightenment in a humorous way.

인욕과 하심에 대한 생활지침서. Dalailama's teachings on inner peace and compassio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letting go and having a pure heart.

Advertisement for 'Wangjungwang' restaurant. Features a menu with traditional Chinese dishes like 'Jjajangmyeon', 'Bibimbab', and 'Jjajang-noodl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branch in Gyeongsang Province.

2001년 달라이라마 방한 운동 선언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 기자회견에서 금년 방한 추진 밝혀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이하 방한준비위)가 봄기운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박광서 상임집행위원장(불교바로 세우기 재가연대 상임대표)과 손혁재 대변인, 김진 집행위원(크리스찬 아카데미 책임연구원), 정용기 사무국장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3월 1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방한준비위는 성명서를 통해 달라이라마의 2001년 방한운동을 선언하고, "지난해 방한 무산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우리의 초청을 다시 수락하였다"고 밝히고 우리 정부의 성숙한 외교역량을 기대한다는 입

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방한준비위는 달라이라마의 방한이 다시 한번 우리민족이 처한 오늘을 반조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훨씬 많은 '떡'이 아니라, 한정돼 있는 '떡'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며, 이 마음만이 우리 사회와 민족이 처한 현실을 극복할 원동력을 밝혔다.

"중국이 한나라임을 주장하는 대만조차 올해 3월 달라이라마를 세 번째로 맞이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정부만이 사대주의 저자세 의

교로 중국의 눈치를 봐야하는가"라는 강한 비판과 함께 중국정부가

한국인의 문화주권을 간섭, 훼손하지 않기를 간곡하게 당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방한준비위는 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서 넬슨만델라의 방한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달라이라마의 방한을 촉구하는 세계지성 66인 선언 동참 명단과 주요 코멘트를 함께 소개했다.

한편 달라이라마 방한준비위원회는 오늘 3월 25일까지 외교통상부가 방한 재추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줄 것을 요청했으며,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에 있는 티벳 망명정부 동아시아 대표부 자를 린포체 대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달라이라마 방한 분위기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생명을 보살피고 돌보는 행위가 되도록

살생법회 아닌 바른 "방생법회로"

부처님 오신날 등에 물고기를 강이나 바다에 풀어주는 방생(放生)이 법회가 오히려 '살생법회'가 되거나 자연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다.

원래 방생은 다른 이가 잡은 물고기, 새, 짐승 등의 산 것들을 살려주는 의미로서 살생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작살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새, 물고기, 날짐승에 대한 방생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더 나아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 부처님 자비사상을 실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

조계종 포교원은 최근 '환경, 인권, 생명 방생 프로그램'이란 자료를 발간, 전국의 주요 사찰에 배부하고 잘못된 방생문화의 개선에 착수했다.

포교원은 자료집에서 방생의 의미를 "생명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돌보는 행위"로 확대하고, "현대사회에서 불교적인 시각으로 적용시키고 실천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자료집은 이에 따라 물고기를 강이나 바다에서 풀어주는 것 위주의 방생에서 벗어나 억압과 질곡에 빠져있는 온갖 생명을 구하는데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 인권, 생명 존중의 방생프로그램을 제시했다.

환경프로그램으로는 사찰생태문화회와 환경생태행동, 인권 프로그램으로는 정신대 할머니와 장미수, 양심수 문제 및 사형제 폐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생명과 관련

한 프로그램으로는 호스피스 활동, 장애봉사, 고아원, 양노원 방문 등을 제시했다.

또 물고기 등을 방생할 경우 방생 전에 수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알아본 후 실시하고 주변과 수중의 환경정화 활동도 하라고 권고했다.

포교원 관계자는 "그동안 방생법회에서 외래어종을 풀어놓아 토종 어종의 멸종위기를 초래하거나 한겨울에도 물고기를 풀어 채 죽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라며 80년대초 미국에서 귀농으로 수입되기 시작한 붉은 개구리는 호수, 연못 등에 서식하는 붕어 등 재래어종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먹는 대표적 생태계 교란범으로 황소개구리와 같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방생문화를 바로잡고 개선하기 위해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한국불교학계의 부끄러운 자화상

참회하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을 넘어 역사적 책무와 역할 제고



지난 20일 100여명이 모여 불교학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하였다.

불교 조계종 종립학술연구위원회(위원장 학담 스님)가 주최하는 '동국대 불교학부를 중심으로 본 한국 불교학의 진단과 전망' 세미나가 20일 오후 2시 서울 견지동 조계종 총무원청사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는 한국 불교학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논쟁 그리고 건설적인 한국불교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는 장영근(서울산업대교수)의 사회로 학담스님(종립학술연구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불교학의 진흥과 불교의 역사회향'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전재성 한국배알리성전협회장이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불교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김종명 동국대 대우교수가 '동국대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불교학 연구의 현주소'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 뒤 박경준 김호성 동국대 교수, 신규택 연세대

평균이나 외국 대학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증적인 조사결과를 제시해 충격을 던졌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동국대 불교학부 전임교수들의 최근 10년간 저서 업적 평균은 국내 대학 평균의 67.9% 수준이며, 최근 3년간의 저서업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7.5%에 불과하다. 또 논문 업적 평균은 국내 대학 평균의 40% 미만, 외국 대학의 22~25%에 머물렀다. 그는 24명의 교수가 지난 10년간 출판한 저서는 87권이다. 1인당 연평균 0.36권, 최근 3년간은 0.04권에 불과하다. 한국 교수 평균 출판율 1.6권에 비교하면 불과 2.5% 수준이다.

특히 전문 학술 서적은 지난 10년간 6권에 불과했고, 그나마 1996년 이후에는 단 한 권도 출판된 바 없었다. 그간 불교계 일각에서 제기된 '불교 학술서 써가 마른다'는 지적이 입증된 셈이다.

김교수는 "불교학이 세계 학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음에 불구하고 정작 1,600년의 불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현대 불교학은 주변학문으로 밀려나 있다"고 진단했다.

질적 측면에서도 전문 학술서적의 간행이 아주 적고, 논문을 수록하는 불교계의 주요 학술지 26종 가운데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등재 후보'로 지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놓아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쓴소리 단소리

현재 한국불교는 타종교에 비해 인적자원이 열등하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것은 일찍이 사람에 대한 투자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포교를 위한 인적 투자를 너무 등한시 한 지금 그 대가를 특별히 치르고 있다. 뒤늦게나마 요즘은 포교를 위한 도심포교당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직은 미흡하지만 인터넷을 포교에 활용하기도 하고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사회적 역할도 가질려고 하고 또 포교를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사업들을 한두 번 했다고 해서 금방 교도수가 늘고 교세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꾸준하게 긴 시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적, 인적 자원을 꾸준히 투자해야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불교 종단 중에서 그러한 점을 감안하고 꾸준히 계획성 있는 투자를 하는 종단은 손꼽을 정도다. 물론 각 종단마다 여러 가지 사정은 있다. 우리 종단도 이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사람에 대한 투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인적투자는 투자의 30%만 돌아오면 그 투자는 성공이라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평가하고 있다. 종교단체나 일반기업이나 아니면 국가도 그 구성의 가장 기본은 사람이다. 결국 종교단체나 일반기업 국가도 흥하고 망하는 것은 그 구성의 기본인 사람에게 있으며 결국 모든 성공이나 희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종단의 미래는 인재양성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는 '성공이나 희망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조계종이나 기타 다른 종단 혹은 교계 언론기관에서는 총지종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종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잠재력이라는 것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힘이다. 깊숙하게 숨어있는 힘을 꺼내 그 힘을 응집시키고 다시 교회사 포교 혹은 종단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바랄 수 있는 매체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제2차종의 중흥을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총지종도 이제 창종 30년 그동안 창종때 부터 종단에 몸담고 계셨던 스승님들의 원력과 정신으로 총지종은 한국불교계에서 우뚝 섰다.

이제는 우뚝선 총지종을 계속 받쳐줄 인재가 필요한때이다. 지금이 바로 인재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 타 종단처럼 젊은 승직자가 일선에 서고 뒤에서는 원로스승님들이 바쳐주고 젊은 승직자의 추진력과 원로 승직자의 경험과 원숙함이 조화를 이루어 한국 밀교의 한 축을 짊어지고 가는 종단, 바로 불교총지종의 미래이며 교도 승단 모두의 희망이다.

제 37차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올해 예산안 827, 271,358원 확정

본종 해암 총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 37차 종단협의회 정기총회가 2월 27일 하림각에서 개최되었다.

2000년도 감사보고와 사업보고, 세입세출 보고, 정관개정 심의와 승인, 임원변경 및 선출 등 11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종단협의회 이사 변경에서 해암 총리원장을 신임 대표로 변경하고 총지종을 포함한 10개 종단이 상임이사로 선출되었으며 또한 대한불교 대각종(본산 미암사, 대표자 석만정스님, 총남 부여 소재)을 회원 가입을 승인하였다.

지난 36차 정기총회에서 98년도 회비 체납종단에 대한 당감조치를 결의 하였으나 2월 24일 현재 79,500,000원이 체납되어 종단협의회 사업추진과 회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종단협의회 정관 정기회비 6개월 체납, 사업분담금 2회이상 체납 종단에 대하여는 징계토록 되어 있지만 한

번도 징계조치가 없었다. 이는 정기회비와 사업분담금을 완납한 종단과 체납종단 사이에 미묘한 관계가 설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01년 주요목적사업으로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봉행과 민족화해와 평화통일 기원대법회를 연등축제전 봉행하기로 하였으며, 일반사업으로 각종 전문위원회 활동 강화와 지원사업, 불교사회복지 정보지원센터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사업으로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한 사업, 부처님 오신날 종경소리와 도시철도공사의 협조하여 봉축대마차 운행한다. 국제교류 사업으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의 및 국제학술강연회 10월말경 중국북경에서 개최 6월초 한국 대표단 일본방문, 중국수행체단단 한국초청하기로 하였다.

한편 2001년도 세입, 세출안을 827, 271, 358원으로 확정하였다.

요가

하타요가에서 쿤달리나탄트라까지

요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요가 행자가 쓴 책
이 책은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에서
(고전 요가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요가연구소 원장으로 10여 년간 현장에서
요가를 지도하고 실천해온
저자가 이론과 실천을 바탕으로 지은 책으로서
요가 전반에 관한 이론서이면서
또한 실천 행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이다.
특히 국내 유일의 요가 전공 박사로서 요가 이론에 밝을 뿐 아니라,
현재 요가 수련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요가 행자가 쓴 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요가의 대표적인 세 가지 경전을 통해
5천년 역사를 가진 요가의 본질을 밝히는 한편,
발전과 변모 과정에서 이론만 요가일 뿐
요가와 는 너무나 다르게 변질되어 버린
오늘날 요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요가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영 저 / 신국판 / 368쪽 / 88,000원

저자 이태영
이태영 박사는 숭실대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0여 년 동안 동국대를 비롯해서 숭실대, 명지
대 등에서 강의해 왔으며,
현재는 한국요가 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저서로는 《요가의 이론과 실천》, 《업사상》,
《초월의 길 해탈의 길》 등이 있으며, 다수의
논문을 썼다.

사원에예법과 불자에예절

사원에 처음 오신 신도분을 위한...

처음 불교에 입문하고 절을 찾는 분들이나
또 사찰에 오래 다닌 신도분들이라 하더라도
사찰의 예법과 불자의 예절을 잘 모르는 경우를
우리는 허다하게 봅니다.
이 책은 이런 초신자들을 위해
많은 사진과 함께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
누구든지 쉽게 사원에예법과 불자에예절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큰 스님들의 말 한 마디,
행동거지 하나 하나가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큰 스승을 만나 곁에서 가르침을 받고 의문을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쉬운대로 책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좋은 책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전문적이어서 처음 절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 소임도 살아보고, 종단의 포교일선에서 활동한 경험을 살려
기본이 되는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가 있다면
포교에 좀더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저자의 머리말

성수스님지/46판/240쪽/55,000원

사원탐방은 중도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신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들려주시시오. 이러한 사연들이 다른 사원 신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유등천을 감싸안은 작지만 큰사원 백월사”



◇백월사 사홍화 전수님과 신정희, 성도회 간부와 함께

사홍화전수님은 30년 진언수행으로 어머니처럼 자상함과 성직자의 근엄함이 함께 있어 항시 교도들과 허물없이 지내신다. 스승님의 깊은 주름과 희끗 희끗 보이는 흰머리가락 사이로 보인 편안함은 총지종단의 역사를 말해주는 듯 하다.

어느새 겨울의 칼바람은 사라지고 살결에 부딪치는 바람은 보드라운이 가득하다. 겨울의 앙상한 나무는 생명의 물기운을 흡수하고 매마르고 차가운 대지는 푸른 감로수에 생명이 꿈틀거린다. 봄 햇살을 받으며 백월사 사홍화 전수님을 만나러 대전으로 향했다.

대한 세심한 배려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발췌부터 사원에는 신정희 회장 정심인보살, 성도회 회장 이종선보살, 총무 순도심 보살 및 여러 보살님들이 계셨다. 마침 오늘이 한달에 한번있는 정기총회가 있는 날이어서 사원이 봄의 햇살처럼 생동감이 있다.

백월사는 총기5년 법장사원당으로 개설하여 초대 주교로 삼지화(현 기로스승님) 스승님을 모시면서 중부지방에 만보사와 함께 밀교 포교전진기지로 개원하였다

스승님과 밀교진언과의 인연은 30년전 과거로 돌아간다.

사홍화 주교님은 초대주교인 삼지화 스승님과 전 통리원장 총지화 전수님 밑에서 교도로 생활하였다. 삼지화, 총지화 두분의 스승님이 초창기 어려운 시절 중생교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가까이 지켜보며 성직자의 모습을 세웠다. 이때의 소중한 경험과 가르침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하심 그리고 항상 자신을 잊지 않은 수행자 사홍화 스승님이 될 수 있었다. 스승님은 부모님이 일찍부터 밀교와 인연을 맺어 가족 모두가 자연스럽게 육자대명왕진언인 옴마니반메흠을 집할 수 있었으며 스승님의 평생 동반자가 되었다.

하얀 둥근 보름달이 어둠을 걷어내듯 여덟고 무명에서 가득한 중생의 업장을 가르는 진리의 문에 백월사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불교는 나의 참모습을 찾는 것이다. 깨달음이란 몸과 마음을 깨치고 살피어 악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계행(戒行)을 기억해 가져서 잊지 않고 부지런히 실천하여 순간순간 찰나마다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와 과학이 공존하는 도시 대전. 무속신앙의 메카 계룡산과 대덕연구단지 위시한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도시가 함께 공존하는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에는 남서쪽으로 호남지방, 남쪽으로는 한반도 남부의 중심부를 뚫고 남해 연안, 남동쪽으로는 충청북도의 남부를 거쳐 영남지방 등으로 통하는 삼남의 관문으로서 경부선·호남선 등의 철도와 경부·호남 고속도로, 국도가 분기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상공업과 교육·문화의 중심도시이다.

갑천·유등천·대전천의 큰 하천은 대전광역시의 대동맥으로 모두 남쪽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서 금강 본류와 합류한다. 갑천은 제일 큰 하천으로 회덕에서 신탄진에 이르는 하구에 대전 제1의 충적평야를 이룬다.

대전의 행정구역은 대체로 이 3개 하천과 관련지어 구획되어 있다. 즉 대전천의 동쪽은 동구와 대덕구, 대전천과 유등천 사이는 중구, 유등천과 갑천 사이는 서구, 갑천의 서쪽은 유성구로 되어 있다.

이 3개 하천이 합류하는 연변에는 넓은 충적지가 발달하였고, 이 충적지와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 사이에는 경사가 완만한 산록안사면(구릉지)이 발달하였다. 충적지와 산록안사면은 대전의 농경, 거주, 산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지형을 이룬다. 3개의 저층 중 유등천을 가슴에 안고 자리잡은 곳이 바로 백월사(白月寺)이다. 예상시간보다 늦게 대전에 도착했다.

유등천 다리위에서 일반 절모양의 전통가옥이나 아님 우리 사원의 일반적인 형태를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후에 알았지만 백월사는 일반가옥을 개조하여 육자대명왕진언인 옴마니반메흠을 모시고 진언수행을 실천하는 법당이었다.

백월사는 건물의 절모양과 크기만 중요시하는 요즘세대의 건물과는 달리 사람의 냄새가 나는 아담하고 따뜻한 사원방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사원이었다. 스승과 교도가 스승과 제자의 차이를 떠나 사랑과 정으로 맺어진 보금자리가 백월사다.

초행길에 길을 잘못 찾을까봐 사홍화 전수님이 유등교에 직접 마중을 나오시는 자상함은 전수님의 사람에



인터뷰



진언은 진실한 언어

Q 진언은 무엇인지요.
A 진언은 진실한 언어입니다.
“眞言者 梵曰 漫?羅 卽是眞言 如語不妄 不異之意”
“진언은 범어로 만달라이다. 곧 진실한 언어 불허망한 언어의 뜻과 다르지 않다”
즉 眞은 진언의 본래 음성이고 우주의 본체로부터 나오는 소리이며, 言은 불허망한 진실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진언은 본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연. 천연 그대로의 상태이지 다른 조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 삼라만상에 조차되지 않은 그대로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본래의 법을 무명에서 가려 진실된 법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찾는 것이 나의 본심을 찾는 것이며 나의 본심을 찾는 것이 우주 삼라만상의 법을 찾는 것입니다. 진실된 진언으로 실천수행을 하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Q 어리석은 질문입니다만 스승님은 30년 수행정진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무엇인지요
A 수행하는 헛수가 중요하게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단박에 깨달음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수행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업이 두터워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부처님의 법을 깨닫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 미천하게 깨달았다고 하면 선업을 지으면 선업으로 다가고 악업을 지으면 악업으로 나 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지으면 부처님은 하나의 법으로 다가고 열을 지으면 부처님은 열의 법으로 다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치 못한 마음 혹은 진실함을 가장한 마음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Q 백월사만의 특별한 교도 관리방법은
A 어느 사원이나 마찬가지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사원이 스승과 종단의 것이 아니라 교도들끼리라는 주인의식을 심어주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계기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 교도들이 마치 자기 집처럼 허물없이 사원을 옵니다. 기쁠때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와 함께 기뻐하고 슬프고 나쁜 소식이 있으면 모든 교도들이 함께 위로하는 가족처럼 되었습니다. 또한 백월사는 신정희와 성도회의 모임이 있어서 두 조직이 유기적으로 상호보완하는 교도들의 조직이 되었습니다.
교도들 스스로가 작은 돈을 모아 월(月) 1회씩 정기모임을 가지고 년 2회씩 단합대회 및 수련회의 시간을 가져 교도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려고 노력합니다.

Q 백월사는 주위에서 영험과 체험을 많이 나타낸다고 하는데
A 대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대표적으로 성도회 회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집을 23살에 와서 아무 이유 없이 사경을 헤메었습니다. 대구의 큰병원도 다녀보고 유명한 한의원도 다녀 보았지만 아무 이유없이 아프기 시작하여 몸무게가 27킬로밖에 안나가 동네 주위의 모든 사람이 곧 죽는다 하였습니다. (중간생략)
멘트하나. 염주 하나. 옴마니반메흠의 진언을 가슴에 안고 가야산 기슭에 가서 진언염송을 1달여 하였는데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집에는 못 들어가고 주위의 조그마한 방을 얻어 진실한 염송으로 1주일만에 방에서 일어나왔는데 동네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이 놀라습니다.
염송 중에 몸에서 무슨 나쁜 기운이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들다가 마지막 몸에서 뜨거운 땀이 확 한꺼번에 나가면서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구요. 하여튼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옴마니반메흠의 진언으로 새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사람이 진언의 체험을 하여 대를 이은 교도가 많아 백월사는 대물림보살(할머니부터 손자, 손녀의 머니까지)이 많습니 다. (취재 : 황의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136-15
전화 : 042)527-5470